



2009년 소의 해가 밝았다. 사상 유래없는 경제위기로 힘든 독자들을 위해 희망으로 보는 '2009 가장뉴스'를 선정했다. 기존 사실을 바탕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는 미래는 물론 '꿈'과 같은 희망 뉴스들도 포함돼 있으니 '희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마음을 모아보자.

조계종 총무원장 단일 후보 총회 양원제 제도개혁

조계종은 2009년 11월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를 추대법회로 대신했다. 24개 교구별로 10명씩, 중앙총회의원 80명 등 360여명의 선거인단은 선거 일주일전 단일후보를 추대하기로 결의했으며, 향후 총무원장·교구본사·총회의원 등 각종 선거제도를 개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1994년 개혁의 상징이었던 각종 조계종 선거제도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스님들은 선거제와 만장일치 추대제 등의 장점을 결합한 새 제도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2009년 12월 사부대중의 일원인 우바새·우바이의 오랜 역할을 받아들여 출가대중으로 구성된 상원, 재가대중으로 구성된 하원 양원제도를 개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원 54명, 하원 54명 등 108명의 사부대중 총회의원을 2010년 3월 선출하기로 결의했다.

총무원위원회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4월 26일 동국대와 종로-조계사 일원에서 시민 200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연등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CNN, BBC 등 해외 방송과 KBS, MBC 등이 생중계한 가운데 봉행된 연등축제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를 알리는 대표적인 축제로 깊이 각인됐다. 해외로 연등축제가 소개된 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3배로 폭등해 정부에서도 연등축제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김성우 기자

동국대 전국 대학평가 1위 해외반출문화재 환수 줄이어

한 해 동안 진통을 겪던 동국대가 2009년 대학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교계 안팎에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다.

5월 열린 동국대 이사회에서 총장에 임명된 동국 스님은 '회합'을 화두로 원용살인을 펼쳐 개교 103년 만에 학교를 일류대학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성공했다.

총장스님은 이사님들을 설득해 재단전 임금부터 확충했다. 장학과 취업제도 등 실효성 있는 인재발사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자 교수·교직원들은 임금을 동결하며 개혁에 힘을 보탤다. 교수들의 연구 성과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저명학술지에 논문

한편 게재 안 된 교수가 없을 정도다.

2008년 말 일방적인 역경원장 해임으로 불자들을 경악케 했던 역경원도 종단협의체로 완전히 재편돼 <한글대장경> 개역 완간 및 전산화 회합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등은 때 아닌 호황을 맞았다. 9월 프랑스 정부가 '직지'를 반환한데 이어 11월에는 일본정부가 '조선왕실의궤'를 반환하는 등 해외반출 문화재환수가 이어지면서 이를 관람하려는 인파가 물결을 이루었다.

조계종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를 7만여 점에 달하는 해외반출문화재 전부를 찾아올 때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영산재 세계문화유산 등재 할리우드 배우들 한국으로

한국불교 문화유산의 정수 '영산재(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2009년 10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회원국 193개국 4000여 참석자 전원인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전 세계를 돌며 평화의 법석을 열어 온 영산재는 평등한 만법유심(萬法唯心) 사상이 인류를 위한 최선의 문화이념을 농축해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이 인정됐다.

제1회 서울 국제불교영화제 개최 중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에 온 국민은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전 세계 지도자·문화인들로부터 축하 서신도 속속 들어오고 있다.

리차드 기어를 위시한 할리웃예술인협회 소속 배우 100여 명은 한국불교문화와 깊이 체험하고 싶으며 한국영화에 출연 의사를 밝히고 있다. 더불어 미국 아카데미영화제는 외국어영화상 수상에 원호 스님을 주인공으로 한 구도영화 '무애'가 유력하다고 전해왔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이번 경사를 계기로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미뤄왔던 달라이라마 조정을 공식적으로 진행, 11월 중순경 한국어 통역으로 '티베트 사자의 서' 축하법문을 49일 간 제주시청광장에서 봉행했다. 내외신을 비롯한 각국 언론사의 열띤 취재 경쟁 속에 국민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도 고조됐다. 이에 따라 대형 서점에서는 달라이라마 관련 서적 등 불서 판매가 급증했으며, 사찰에 신도 등록하는 사람들도 3배나 늘었다.

가연숙 기자

종교연합 종교인대회 열려 대운하 대신 환경에너지 개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종교인들은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종교연합을 위한 범종교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를 비롯한 종교인 1만여 명과 신도 50만 명이 참가해 화합을 노래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직접 참가와 축전을 보내 역사상 유례없는 종교인 대회에 축하를 보냈다. 범종교인대회를 계기로 상대종교를 더 알고자 하는 열망에 각종 불교·신학 대학과 교리강좌는 수강생으로 넘쳐났다.

남북불교교류도 화합의 물결을 타고 다시금 활성화됐다.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불교교류는 나무심기와 문화재발굴 및 교류, 해외 불교사업 공동추진 등으로 민족의 희망으로 자리 잡았다.

환경단체와 불교계가 반대하는 대운하 추진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문제 등 환경정책은 전면 금지로 일단락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대강 정비사업 예산 14조를 환경에너지 및 산업 지원예산으로 재편성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대운하 추진은 임기 내 없으며, 친환경 녹색성장으로 환경·바이오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포교회는 그 중요성을 인식한 스님 및 사부대중의 후원 증가로 5000명 수용인원의 논산훈련소 군법당 증축 등을 성료하고 일선 군부대 발당 개·보수 사업을 시작했다. 아울러 군법사 처우도 개선돼 취업난으로 인한 구직자에 맞물려 1:108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했다.

노덕현 기자

사찰 소유권 분쟁 일단락 위덕대 세계 대학순위 43위

신촌 봉원사 소유권 분쟁이 조계종과 태고종의 원만 합의로 일단락 됐다. 특히 이번 합의는 2008년 제기된 '양 종단이 봉원사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나눠 갖는 데 합의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며 합의를 이뤄내 갈채를 받았다. 봉원사는 이를 계기로 박

물관·교육시설 등을 갖춘 교육문화도량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전남 순천시청이 대리관 리했던 선암사도 태고종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대리관리의 재량권 문제 등 많은 어려움



을 겪는 상황 속에서 불교발전 을 위해 양 종단이 극적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편, 주기적으로 재가 불자안거를 진행한 천태종이 10년간 안거에 꾸준히 참석했던 10여 명의 재가불자가 '동시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발표해 화제가 됐다.

천태종의 한 관계자는 "상월원각 대 조사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에 매진하던 재가불자들이 득도하게 됐다"며 "이는 수행 생활화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한 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각종은 종립 위덕대가 2009 타임즈 세계 대학순위에서 43위에 올라, 한국대학 최고 순위(2008년 서울대 50위)를 갱신하는 기쁨을 맞이했다. 이번 결과는 세계 각 국가 교육자들이 '불법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 등을 연구하는 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많은 종단들이 계율을 체계화하고, 종도 교육을 정기화 하는 등 종단 내실을 다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전반적인 불교계의 안정을 도모했다.

김진성 기자

아름다운동행 기부문화 정착 템플스테이 전 세계인 주목

2008년 아름다운동행이 설립된 후 2009 한해에는 소액기부와 더불어 기부문화의 정착을 가져왔다. '아름다운 동행 제2·3호 홍보대사' 홍명보·박지선 선수와 불자 연예인들이 참여하면서 기부액이 200% 증가했다.

또한 외국인들의 국내 관광증가에 가장 큰 공헌을 한 템플스테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설문조사 결과 '한국에서 반드시 해봐야 할 것 1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올 7월에 세계적인 축구선수 베컴 가족이, 10월에는 브래드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가족이 전국 사찰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면서 CNN을 비롯한 전 세계 방송에 소개됐다. 한편 템플스

테이가 초·중·고등학생심신 단련 프로그램으로 인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템플스테이 수행 전문센터 착공식을 갖기도 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5월 시청 앞 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600만 여성불자 대법회'를 열어 여성 불자의 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또 웰다잉 운동은 현대인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라는 평가를 받으며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파라미타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지역 협회 결성을 완결하는 동시에 내실을 기하면서 가장 강력한 청소년포교단체로 자리 매김하는 한 해가 됐다.

공무원불자연합회는 올해 1만여 명의 회원이 각 지역 사찰에서 동시에 '종교화합대법회'를 열어 화제가 됐다. 또 국내에서 일어난 재난 및 사고현장에 앞장서 종교화합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선행을 실천했다.

이상연 기자

불교서적 줄줄이 베스트셀러 불교복합점 '니르바나' 탄생

2009년 불교출판업계는 2008년의 침체를 한 번에 반전 시킨 다양한 기획·마케팅 기법이 시도돼 경제 불황에 시름하는 불자들에게 행복을 전했다. 참신한 기획력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범종 스님에 필적하는 신인 작가도 등장했으며, 대형 불교 유통업체가 탄생해 불자들이 환호를 보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경제와 관련된 자기계발과 마음공부 관련 서적이 기획·출판되면서 높은 인기를 누렸다. <佛과 佛(佛)은 다르다>를 비롯한 10여개 불교서적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 10주 연속 선정되는 등 사랑을 받았다. 특히 <위대한 스승 붓다를 말한다>는 "불교를 가장 쉽게 설명했다"고 평가받으며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으며, 영문으로 번역돼 뉴욕타임즈와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12주 연속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뛰어난 작가들도 등단해 불교출판계의 미래를 밝게 했다. 대박 스님은 제2의 법정 스님으로 평가받으며 각종 출판관련 법회 시 대중을 끌어 모았다.

또한 불서총판 운주사에 이어 불교 서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불교전문 복합공간인 '니르바나'도 탄생했다. 서울을 포함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울산 등 6개 광역시에 오픈한 지점은 불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불교관련 상품을 접할 수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본점 1층에는 전문 서점이며, 2층에는 채식위주의 레스토랑, 전통 찻집, 불교 용품점이 3층에는 선(禪)체험관 및 교육관이 마련됐다.

이은은 기자

자비로우신 부처님의 가피로 모든 불자님들의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숲의 싱그러운 에너지를 그대로!

국내산 편백나무 추출, 인체에 유익한 천연 자연성분 피톤치드 - 중외 피톤케어 휘산기

- #### 중외피톤케어 휘산기는
- 산림욕물질(전남 회순군 편백나무에서 채취된 피톤치드) 이므로 방 안에서 산림욕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실내의 모든 악취가 제거되고 숲속 향이 은은히 퍼집니다.
 - 사람의 각질을 먹고 사는 집먼지 진드기가 97% 기피되어 알레르기 환자에게 좋습니다.
 - 호흡을 통하여 몸에 흡수되므로 별도의 정치가 필요없습니다.

- #### 피톤치드의 효능
- 환경유해물질을 분해합니다.
 - 스트레스를 저감시켜 줍니다.
 - 악취를 제거합니다.
 - 학습능력을 높여줍니다.
 - 애완동물의 진드기를 없애줍니다.
 - 불자님의 정신 집중을 도와 드립니다.

- #### 다음의 분들에게 사용을 권합니다.
- 향을 많이 쓰시는 법당의 스님과 불자님
 - 정진하시는 불자님
 - 장기요양을 하시는 분
 - 갱년기 증상을 겪고 계시는 분
 - 집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 새집에 입주하신 분
 -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
 -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을 하시는 분
 - 기타 실내 정화가 필요하신 분

• 제품구성 : 중외 피톤케어 휘산기 1대, 휘산기 리필 3개입 4박스(약 4개월분) / 정가 40만원

** 모든 불자님께 20% 할인된 가격으로 모십니다.
선불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10
중무소 053-638-6162 / 053-643-4771
팩 스 053-643-4772

(주)지앤지 G&G
무료주문전화 080-200-1800
http://www.gngpia.com